국가유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10월 9~11일 사흘간 봉행
사부대중 500여 명 동참
임법 스님 "수륙재로 평화"

유제만 동해지국장


삼화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삼화사에서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다.

국가무형유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가 무주고혼의 천도와 국태민안, 중생의 평안을 발원하며 동해 삼화사에서 사흘간 봉행됐다.

삼화사수륙재보존회(회장 임법 스님·삼화사 주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삼화사에서 '2026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첫날 열린 법요식에는 회장 임법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이철규 국회의원, 이정학 동해시장,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장 등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개성왕씨중앙종친회 왕봉식 회장과 임원, 동국대 학인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물과 육지에서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음식을 베푸는 전통 불교의례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국가 차원에서 설행된 역사적 전통을 이어, 망자의 극락왕생뿐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평안과 국가의 안녕을 함께 기원하는 의식이다.

첫날 의식은 천신과 신중들에게 도량의 옹호를 청하는 신중작법으로 시작됐다. 이어 높이 13.5m, 폭 7.5m에 이르는 대형 괘불과 불패를 모시는 괘불·불패 이운 의식이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의례에 동참하며 무주고혼의 극락왕생과 국가의 평안, 모든 중생의 안녕을 발원했다.

삼화사 주지이자 수륙재보존회장인 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륙재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법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현 수륙재추진위원장은 봉행사에서 "국행수륙대재를 통해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고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인광 스님은 상원사 주지 혜량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수륙대재를 "산 자와 영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이루는 의미 있는 법회"라고 설명하고 행사에 함께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수륙재 전승과 보존에 기여한 불자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삼화사는 "앞으로도 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하며 불교문화유산의 의미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의 넋 위로한 부여수륙재대

10월 10일 구드래 선착장 일원
제72회 백제문화제 일환 봉행



백제부여불교수륙대재보존회(회장 태설 스님·고란사 주지)와 부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덕 스님·무량사 주지) 및 신도회는 10월 10일 부여 구드래 선착장 일원에 마련된 야외 법석에서 제72회 백제문화제와 함께하는 '불기 2570년 부여수륙대재'를 봉행했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와 충청남도, 부여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백제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되새기고, 지역의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문에 나선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수륙대재가 영가를 위한 공양과 천도를 넘어 살아 있는 이들의 삶에도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의식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한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게 하시고, 부여의 백제문화와 불심이 길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태설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우리가 봉행하는 수륙대재는 백제 역대 군왕과 충신, 이름 없이 전장에서 쓰러져간 무명장졸과 수많은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뜻깊은 불교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여수륙대재가 백제문화의 정신과 불교의 자비를 전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 법석의 공덕으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이 지역의 평안과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선상 유등과 천도재에서는 백마강 위에 추모의 등불을 밝히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참석 대중은 수륙대재의 공덕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하며 수륙대재를 회향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대웅전 상량

10월 9일, 상량의식 봉행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은 10월 9일 광주 서구 운천로 신축 대웅전에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대웅전 상량의식'을 봉행했다. 2024년 기공 이후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으로 이어온 불사가 전통 목조건축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새롭게 건립되는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전통 목조건축물이다. 외7포와 내9포의 공포형식을 갖추고 배흘림기둥과 귀솟음 등 전통 건축기법을 적용해 장엄함과 안정감을 살렸다.

광주지원은 내년 3월 27일에는 전국 지원의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정식 상량법회를 봉행한 뒤 우주탑 조성, 부처님과 후불목탱화 등 후속 불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체 도량 불사는 향후 2~3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원사, 고종황제·명성황후 추모문화제

10월 11일, 중악단 특설무대서
사단법인 등록…내년 창립 예정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는 10월 11일 중악단 앞 특설무대에서 제15회 고종황제·명성황후 추모문화제를 봉행했다. 신원사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 오늘 다시 계룡산에서'를 주제로 열렸다.

문화제는 고혼 위령재와 추모 법요식, 문화공연으로 구성하고 범패작법과 바라춤에 이어 위패 이운과 안좌·헌작이 진행됐다. 종묘제례악 보존회와 황실 후손들이 의식에 참여하고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은 위패 이운을 지원했다.

신원사는 중악단 산신대제 보존을 위한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내년 봄 창립 기념 산사음악회와 국회 학술발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황실 후손과 학계,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묘제례악과 결합한 중악단 궁중제례를 복원하고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암사 삼소사계, 인문학으로 마음 살피다

10월 10일, '삼소사계–가을' 성료
인문학 강연–국악 공연 펼쳐져



정선 정암사에서 인간의 인식과 기억을 탐구하는 인문학 강연과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이 어우러졌다.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 스님)는 10월 10일 '2026 정암사 인문학 콘서트 삼소사계-가을'을 개최했다. '인식: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실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문화심리학과 기억에 대한 성찰을 국악 공연과 연결해 산사를 찾은 사부대중에게 인문학과 전통예술을 함께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1부 강연은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가 맡았다. 한 박는 '심리학과 기억: 내면의 편향성 발견'을 주제로 인간의 기억과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 그 안에 작용하는 편향의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2부에서는 '가을 산사의 호젓한 서정, 국악 콜라보'를 주제로 공연이 펼쳐졌다.

유제만 동해지국장

광주 광덕사 '네팔 구호 기금 마련 음악회'

10월 8일, 누리하제 인문학당 주최



종교의 경계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 온 광주 누리하제 인문학당이 네팔 대홍수 참사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열고 자비와 나눔의 뜻을 모았다.

광주 광덕사(주지 동진 스님)와 누리하제 인문학당(공동대표 민판기)은 10월 8일 광덕사에서 '네팔 재난 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기타와 에어로폰, 국악과 치유음악, 세계민속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음악을 통해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광덕사 신도가 후원한 남성복 재킷 300벌을 판매하는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네팔 재난구호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공감이 실질적인 자비나눔으로 이어지고 실천의 장이 돼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효 문화 공동체 만들겠습니다"

전주 금선암, 6회 금선 보은문화제
어르신 1000명에 자비나눔 펼쳐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과 금선자비공덕회(회장 김영돈)는 10월 11일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6회 금선 보은문화제'를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공양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언해'의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효 문화를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금선 보은문화제는 효 문화 계승과 선양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마당"이라며 "신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를 향한 온정의 손길도 전해졌다. 금선자비공덕회 김영돈 회원은 송광사 백산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동원에프앤씨 동원순대국밥집 권동원 대표는 조지훈 전주시장에게 어르신들을 위한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용 봉사와 바라밀 건강봉사단의 건강 상담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서 꿈 키우길"

천은사, 구례북중 전교생에 장학금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10월 12일 구례북중학교 도서실에서 '2026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교생 25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생들에게 햄버거와 음료수 등 간식도 함께 전하며 따뜻한 격려를 나눴다.

수여식에는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과 신은호 구례북중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신은호 구례북중학교장은 4년째 이어지는 천은사의 지속적인 장학사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생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천은사의 구례북중학교 장학사업은 2023년 500만원의 장학금 전달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당진 영탑사, 음악·나눔 가을축제

10월 9일, 제2회 산사음악회



당진 영탑사(주지 원정 스님)가 10월 9일 제2회 산사음악회를 열고 불자와 지역 주민, 방문객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의 문은 이음새경기민요단이 열었다. 친숙한 민요로 흥을 돋운 후 이어진 당진시충남합창단 무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시간을 선사했다. 신촌블루스와 한영애의 무대는 또 다른 감동을 줬다.

공연 사이에는 '영탑사 자비나눔' 전달식이 열렸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보원사지서 펼쳐진 자비 법석

제7회 무차평등 수륙대재



서산 보원사(주지 단경 스님)는 10월 10일 서산 보원사지에서 '제7회 무차평등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특히 49일간 이어진 기도의 공덕을 지역사회에 회향하며 불교의 평등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되새겼다.

이번 무차평등의 가르침은 자비나눔으로 이어졌다. 수륙대재 설행위원회는 49일간의 기도 기간에 모은 '칠칠금' 1000만 원을 서산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또 운산면 어르신 180가구에 각 햅쌀 4kg과 화장지 24롤을, 세광마을에 쌀 200kg을 지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청화 대종사 유품, 무안군 품으로

유물·유품 193건 326점 기증



무안군(군수 김산)과 청화 대종사 문도회인 벽산무주회는 10월 13일 무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청화 대종사 기념관 유물·유품 기증·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증·기탁식은 청화 대종사(1923~2003)의 수행과 사상을 후대에 전승하고, 개관을 앞둔 무안 혜운사 청화기념관의 전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벽산무주회 문도 스님들이 보관해 온 청화 대종사의 유물·유품은 총 526건 877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증유물 130건 195점과 기탁유물 63건 131점 등 모두 193건 326점이 무안군에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